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원융문이란 무엇이냐? 향포문은 또 무엇인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줄 맞추어 늘어선 것’과 같다. 청량 스님의 <현담(玄談)>을 인용해 보자. 권5에 이르기를 ‘향포(行布)라 말한 것은 오르고 내림(階降)과 같고 알음(淺深)을 즐이지어 나열하고 분포하는 것이니, 저 두번째 법회에서 십신(十信)을 밝히고, 세번째 법회에서 십주(十住)를 밝히고, 네번째 법회에서 십행(十行)을 밝히고, 다섯번째 법회에서 십회향(十迴向)을 밝히고, 여섯번째 법회에서 십지(十地)를 밝히고, 일곱번째 법회에서 등각(等覺)과 묘각(妙覺)을 밝힌 것과 같다. 앞은 뒤가 아니며 뒤는 앞이 아니므로 향포라 말하였다.’

개인 - 전체 조화 이뤄야 원융

상대 피해 안주며 자신 공간 만들도록

“원융(圓融)이라 말한 것은 원만하게 융통함이다. 초발심주(初發心住)가 곧 나머지 9주(住)와 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십지(十地) 등을 섭수함과 같다. ‘날날 지위가 차면 곧 불지(佛地)에 이르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따로 5위(位)가 서로 섭수함을 밝힌 것이니, 저 초주(初住)가 초행(初行)·초회향(初迴向)·초지(初地)를 섭수하고, 제2주(住)가 제2행(行)·제2회향(迴向)·제2지(地) 등을 섭수하고, 제십주만(第十住滿)이 곧 제십행만(第十行滿)과 제십회향만(十迴向滿)과 제십지만(十地滿)을 섭수함과 같다.”

그래서 증거문으로 범행품(梵行品)에 말하였다. “초발심할 때에 곧 아늑다라삼삼보리를 얻어서 일체법(一切法)이 곧 마음의 자성인 줄 알고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는다.” 또 초지(初地)에 이르기를 ‘일지(一地)가 운데에 일체 모든 지(地)의 공덕을 갖추어 섭수한다. ... 신(信)이 과해(果海)를 포섭함과 처음 발심할 때에 문득 정각을 이룬

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열한 42위의 행법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날날의 수행이 무르익게 되면 한 지위가 다른 여러 지위를 섭수하여 그 속에 온갖 공덕을 모두 갖추게 됨을 말하고 있다.

이런 논의는 육상원융(六相圓融)으로 그 절정을 이루는데, 세친보살은 <십지경론(十地經論)> 권1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6가지 양상이란 총상과 별상, 동상과 이상, 성상과 괴상을 말한다. 총상이란 근본적인 들어감이요 별상이란 나머지 9가지의 들어감이다.”

청량 스님은 십지품소(十地品疏)에서 이를 비유로 말하였다. “또한 마치 여러 대들보로 하나의 집을 지었을 적에 총상(總相)으로는 집이요, 별상(別相)으로는 여러 서까래요, 동상(同相)으로는 서로 서로 어기지 않는 것



그림·문병성

성차별 버리는 일 = 자비 실천

불교와 과학 <41>

3만개 정도로 추정되는 인간의 유전자 수는 DNA를 구성하는 4가지 염기의 배열인 염색체 안에 들어 있다. 그 염색체 수는 짝으로 구성된 23종류, 즉 46개이다. 그렇다면 염색체 하나에 들어 있는 유전자의 수는 대충 평균해서 600개 정도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실제로는 평균값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44개는 상염색체로서 일반적인 몸의 구성을 이루는 정보를 담고 있고 나머지 2개의 염색체가 여성이나 남성이나를 가르는 성염색체라고 불리는 정보를 담고 있다. 여성은 X 염색체 두 개로, 남성은 X 염색체 하나와 Y 염색체 하나로 성염색체가 채워진다. 결국 여성과 남성은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단 하나의 염색체의 차이밖에 없다.

성차별

남녀 유전자 15개만 달라 차별할 만큼 큰 차이 없어

그런데 Y 염색체에는 3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 정도는 X 염색체와 같으며 나머지 15개 정도의 유전자만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3만개 정도의 인간 유전자 중에서 겨우 15개의 유전자만이 남녀의 차이를 만드는 유전자 정보 풀(pool)이 되는 셈이다. 물론 남녀의 차이를 유전자의 정량적인 수 개념으로 환원하여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지면에서 말하려는 뜻은 남녀의 유전학적 차이가 우리 사회에서 보듯 그렇게 관습화된 성의 차별을 가져다 줄 정도의 대단한 차이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남녀간에 생리학적 차이는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두뇌의 좌우 구조에서 남자는 우뇌와 좌뇌의 기능 차이가 뚜렷하지만 여성은 양쪽 뇌 기능의 상호교환성이 강하다. 특정질병에 노출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며, 이는 성 호르몬과 밀접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은 세포의 노화 진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고 한다. 외모에서 성기구조의 차이, 골격과 근육의 발달 정도, 상대 구조에 의한 목소리의 차이, 자손에 대한 양육 의지의 차이, 그리고 호기심이나 성격의 차이 등도 당연히 있다. 그런데 인류가 조직사회화 하면서 남녀간의 외형적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바뀐 것이 문제다.

후손을 더 많이 증식시키기 위하여 암컷을 차지하려는 수컷끼리의 싸움이나, 그렇게 차지한 암컷을 강하게 지배

사찰·교육기관 점거 스님 5천여명 추방

지구촌 불교 / 中 티베트 탄압 강화

무장한 중국 공안(경찰)들이 티베트 불교사원과 교육기관에 난입해 스님들을 내쫓고 있다.

AP 통신은 20일 티베트 정보 네트워크(Tibet Information Network) 등 감시 그룹의 말을 인용, “공안들이 중국의 서쪽 국경 지역의 티베트 불교 사원과 교육 기관을 점거하고, 수백명의 스님과 불교학자들을 내쫓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안들의 탄압행위는 주로 중국 내 티베트 불교의 주요 거점인 쓰촨(四川) 성과 인근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계의 최대 교육기관으로 7000여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세타르(Sethar Buddhist Institute)의 경우, 무장한 공안들에 의해 세타르는 물론 인근 지역 건물까지 파괴되고 있으며, 스님들은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비난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몇몇 비구니 스님들이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사망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쓰촨성 안푸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공안의 만행을 보도한 AP 통신의 안토니(Anthony) 기자는 “중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티베트 불교계의 포교 활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은, 중국 당국이 티베트 불교계의



티베트 불교계 최대 교육기관인 세타르에서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

공안 사천성 일대 검문·건물 파괴 고승 투옥... 비구니 스님사망 소문

활동은 ‘중국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6월 ‘이 지역 불교사원과 교육기관의 활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공질서를 위해 폐쇄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해당 사원과 교육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떠날 것을 강요했다.

또한 안토니 기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0월경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미·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쓰촨성 안푸에서 진행되고 있는 티베트 불교 탄압 행위를 단기간에 조직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미 5000여 명의 스님들이 추방됐고, 세타르의 주지인 푼츝(Phuntsok) 스님 등 이 지역 고승들 대부분은 중국 행정당국에 불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푼츝 스님은 1980년대 중국의 통제를 받는 티베트 불교기구에서 탈퇴한 후 세타르를 세운 고승이다. 세타르는 7000여 명의 스님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중국내 티베트 불교계 최대 규모의 교육기관이다.

한편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별도 기사에서 ‘티베트 스님 다수가 당국의 통제와 탄압에 ‘은밀히 저항’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당국이 스님들의 숙소를 불시에 검문해 인도 명령 중인 달라이 라마의 사진 소지 여부 등을 가려내고 있으나 스님 대부분이 달라이 라마의 사진을 감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2001년도 하반기 정토불교대학 개강 (2년제)

정토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근본사상이 왜곡되지 않은 「바른불교」, 어렵고 난해하지 않은 「쉬운불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생활불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년, 4학기 과정)

교과과정	
■ 불교입문과정·실천적 불교사상	■ 불교와 사회 I: 불교와 인류문명
■ 부처님의 일생: 인간불다.	■ 불교와 사회 II: 불교와 환경생명사상
■ 근대불교: 불교사상의 부비	■ 불교와 사회 III: 불교와 평화
■ 변천사: 한국불교 및 인도불교, 세계불교변천사	■ 불교와 사회 IV: 불교와 복지
■ 불교음악: 대중불교의 꽃	■ 기악: 특강 및 수행수련
■ 수행론: 참나를 찾아서	

서울	교육기간	요일	법회시간
부 산	9/4-12/11	매주 화	주/야
대 구	9/3-12/10	매주 월	주/야
대 전	9/5-12/12	매주 수	주/야
청 주	9/7-12/14	매주 금	주
마 산	9/4-12/11	매주 금	야

원서교부 및 접수처 모집대상 및 입학금

서울정토불교대학 02) 587-8993 ○ 대 상 : 만 19세이상 누구나 다

부산정토불교대학 051) 557-2746 ○ 참가비 : 6만원 (한 학기)

대구정토불교대학 053) 744-3025 ○ 접수기간 : 7월 16일 - 9월 24일

대전정토불교대학 042) 253-8990 ○ 접수 및 문의 :

청주정토불교대학 043) 284-5951 각 지역 대학 사무국

마산정토불교대학 055) 247-8991 * 본과정은 중간학기부터

011) 9000-9529 시작하셔도 됩니다.

2001년도 하반기 정토불교통신대학 개강 (2년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근본사상을 기본 교과내용으로 하면서 사회적 실천대안을 새롭게 제시하신 법륜스님께서 정토불교통신대학에서 강의합니다.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자연을 일구는 법륜스님의 통신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입학대상: 성인 남녀 누구나 (연령, 학력 제한 없음)
2. 교육기간: 2년(4학기)
3. 특전사항: 2년 전과정을 미친사람은 대안불교조계종 포교사교시를 거쳐 포교사자격이 주어집니다.
4. 접수기간: 7월 16일 ~ 9월 24일 (일요일)
5. 접수 및 문의: 정토불교대학 사무국
전화: 02-587-8994 / 전송: 02-587-8998
6. 입학식·소집일: 2001년 9월 9일 (일요일) 오후 1시, 정토외관
7. 교육방법:
 - 법륜스님께서 강의하신 녹음테이프와 교재가 우송됩니다.
 - 과목별로 과제물을 제출하여 평가받습니다.
 - 철저한 학사관리를 합니다.
8.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9. 통 상 비: 입학금 10만원, 입학기 20만원 (분할 가능)
* 국민은행 823-01-0148-855 <이치연>
10. 교과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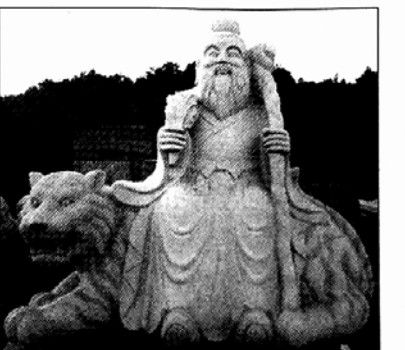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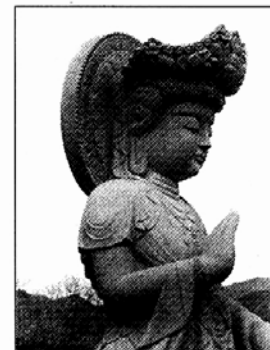
심천적 불교사상	인간불다	근본불교	불교의 변천사
법성계	신심법	반야심경	육조단경
관경과 불교	복지와 불교	평화와 불교	동일과 불교
일수행의 수행	일수행의 일	마음 다스리는 길	민족의 역사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 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전화: 011-284-5101